

# 신행수첩



◇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에서도 불자들에게 스티커를 나눠 주고 있다.

## '불자가정' 부착 확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각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매 이상 주문에 대해 각 사찰,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전면에 인쇄해 제작하기로 한데 따른 대량주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낱자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1천매 이상 대량주문 해도 전화·팩시접수 우편발송도



###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동국대(총장 송석구) △본원정사(주지 대련) △대구 수덕사 △경기 용현사 △월간 '해인' △인파선원(주지 정덕) △문수사(주지 혜경) △도솔암(주지 해산) △광명선원(주지 초격)  
천매이하: △보연사(주지 해법) △지보사(주지 행운) △안산불교신도회 △수산연애암(주지 견희) △경기 사자암 △봉림사(주지 지중) △경북 삼천사 △이동포교원(주지 혜동) △연화사(주지 김명수) △용화사(주지 선혜) △천경사(주지 법일) △부산 법문사 △충남 봉황사 △대성사(주지 보각) △광호택 △오향해 △박학수 △배두홍 △이재영 △박영옥 △박승래 △나용기 △염영주(불교홍지중) △문정현 △정영희 △박희균 △김은희 △정진영 △정경용 △김영호 △김도균 △허기림 △정순현 △곽영만 △김순임 △박옥순 △최인봉 △어창훈 △심업 △백수동 △강희순 △백정식 △박관엽 △김정애 △김현정 △황봉기 △조승태 △박희철 △유영호 △김홍용 △최장순 △이재영 △김정애 △조인세 △왕원정 △서남교 △이성년 △유혜자 △김해수 △정미숙 △황학봉 △김정록 △김찬우 △김길자 <우순>

###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  
전화: 737-8881, 722-4162  
팩시: 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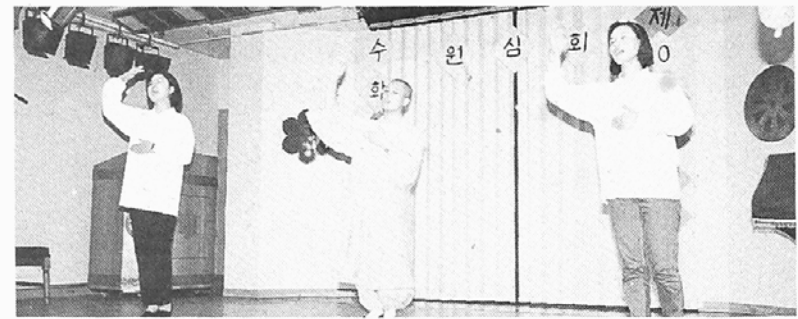
## 머리엔 지혜 가슴엔 법열 일산법등사 가족법회

백곡히 들머선 아파트 사이에서 우리의 정서는 메말라가고, 배움에 대한 열의도 이기적이기 마련이다. 이런 우리들의 가슴에 불비를 축복히 적셔줄 강의와 함께 가족법회를 마련하는 사찰이 있다. 매주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엔 어김없이 가족법회를

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아랍로 삶의 소박한 행복이요 기쁨일 것이다. 장애인포교를 위해 수화반과 점자반을 운영하고 있는 원심회가 녹음도서를 보내줄 분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점자로 된 책을 읽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책의 내용을 음성에 담은 테이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말하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2)720-4528

## 수려한 산천 역사의 향기 터사랑 태백·삼척 기행

아름다운 꽃과 싱그런 햇살이 조화스런 계절, 이럴때면 한번쯤 이 국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국토순례모임 '터사랑'이 이 땅에 대한 사랑을 가득 싣고 6월 10, 11일 양일간 강원도 태백산 일대와 삼척주변의 문화유적



◇ 마음에 담은 따뜻한 불심을 두손의 수화로 전하며 명인불자 포교에 온 힘을 기울이는 원심회의 법우들.

## 통해 법열을 나누는 일산 법등사 (주지 해종스님)는 첫째 일요일에

는 박광서교수(서강대 불리학과)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를, 셋째 일요일에는 신구탁교수(연세대 철학과)의 '선사들의 이야기' 강의를 마련,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을 함께 전한다.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은 화창한 봄날에 사찰을 찾아 자기만의 발원과 강의를 들으며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에 온기를 불어 넣는 것도 바쁘게 돌아오는 오늘날에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0344)901-0877

## 국토를 맑고 풍요롭게 '은행나무 심기' 강좌

우리국토를 보다 기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은행나무 강좌'가 열린다.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무로 알려진 은행나무는 공해에도 강해 도시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각종 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나무이다. 이창호 한국은행나무연구위원장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은행나무의 약효, 자원, 상품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강의는 6월1일 오후1시~3시, 불교자연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사무실에서 열린다. (02)972-9269

## 자를 찾아 국토순례를 떠난다. '산이 있어 거기에 오른다'는

말처럼 '내 국토가 있어 여가를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순례가 될 듯하다. (02)725-1284

## 작은 사랑이 전하는 광명점자용 녹음도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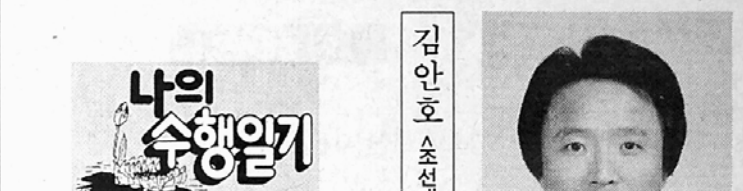
한사람의 작은 수고가 다른 사

## 자신을 찾아가는 생황 불교문화센터 강좌

생활에 여유로움과 중요로움을 제공하는 새로운 불교문화가 시작되는 곳, 불교문화센터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불자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선사한다. 오는 6월5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계속되는 이번 제11기 강좌는 반야심경 강의, 원각경 강의, 불교사상강좌, 생활선, 불교문화재교실, 불화그리기 등 총48개의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 운영된다. (02)703-0108

## 종립학교 소년소녀 가장에 희망을 수안스님 전시 2천만원 기탁, 대상자 접수중

교 '모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해달라'며 본사에 기탁했다. '나의 그림은 기도'라며 그림과 수행을 통일선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종립학교 소년소녀 가장을 본사로 추천하면 선별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02)722-4162, 737-8881



## 나의 수행일기

내가 불교에 입문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나는 한때 기독교 신앙생활을 4년 가까이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종가대 장손으로서 제사문제도 심한 갈등을 느낀 끝에 찾은 곳이 아내가 다니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었다. 스님들은 흠어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공부하고자 집요하게 파고드는 나의 질문에도 전혀 싫은 기색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절은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각 지역별로 지원이 있고 각 지원에 두세명의 비구니스님이 계시면서 중생의 마음 닦는 공부를 지도하고 있는 조그만 사찰이었다. 보통 사찰하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위치하지만 그곳은 도심 한곳에 위치한 것부터가 다른 사찰과 달랐다. 스님들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은 마음이 곧 부처이니 자기 마음, 즉 자기 주인공을 확실히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말하고, 관(觀)하려는 생활함으로써 축약시킬 수 있다. 선원 큰스님의 가르침을 행하게 되면

## 종교적 방황 후 '자유' 찾아 초발심

### 대학교수 '상' 버리고 나서 믿음의 참뜻 깨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내 주위가 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고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놓는다, 말간다, 관한다는 말씀자체의 이해도 쉽지 않았으며, 행(行)은 더욱 힘들었다. 처음 나는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스님이나 신도들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은 각기 달랐다. 나는 나의 의중을 내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불경서적을 다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주위의 교수들은 전공서적은 보지 않고 불경서적만 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김교수, 스님 될거야?'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문자에 그달리지 말고 마음을 닦는데 정진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아는 것이 있어야 행(行)을 할 것이고 행(行)이 있어야 중(衆)이 있을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논리적 분석에 길들여진 습관으로 불법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



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 참으로 해탈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마음을 닦아 깨쳐야 되는 것이지 문자를 의지해서 중독하려고 하면 참다운 공부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은 각기 달랐다. 나는 나의 의중을 내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불경서적을 다치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주위의 교수들은 전공서적은 보지 않고 불경서적만 보는 내가 이상했던지 '김교수, 스님 될거야?'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문자에 그달리지 말고 마음을 닦는데 정진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아는 것이 있어야 행(行)을 할 것이고 행(行)이 있어야 중(衆)이 있을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논리적 분석에 길들여진 습관으로 불법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

# 禪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싶은가?

禪수행 전반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진제대선사의 선이야기

## 禪 백 문 백 답



### 본문 중에서

문 선가귀감에 이르기를 "이치로는 깨달았어도 습기는 除하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답 그것은 모순이다. 물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습기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견성을 하면 습기와는 상관이 없다. 번뇌가 곧 물, 완전히 진리로 돌아갔는데 번뇌에 돌아나게 되겠는가? ●경오년 4월 수선회와의 문답 중 ●

문 스님께서서는 화두를 目前에 두라고 하셨는데, 목전에 둔 화두 있고 화두 드는 사람 따로 있고 하면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답 둘로 어떻게 쪼개져. 그건 온 정신을 목전에 두라는 말이지. 목전에 두는 것이 숙달되면 앉아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걸어도, 때도 그렇고, 누울 때도 그렇고, 어느 때건 한 생각 모으기가 쉽다. ●경오년 동인지 정진대중과의 문답 중 ●

### 마야, 알고 또한 알겠는가?

떨어진 꽃은 뜻이 있어서 흐르는 물을 따라가나, 흐르는 물은 정이 없어 떨어진 꽃만 보냄이로다. ●서문 중에서 큰스님의 말씀 ●



도서공급 운주사 02) 720-9371-3  
도서 출판 파란나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651-1번지 TEL. (053)252-4825 / FAX (053)252-7549  
선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쉬운 대화체로 엮었습니다